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CRASH

가제 : 그 날의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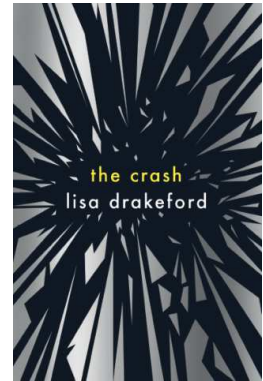
저자 : Lisa Drakeford

출판사: Chicken House Ltd

발행일: 2017년 7월 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The Baby*』로 브랜포드 보스 우워드(*Branford Boase Award*)와 카네기 메달 후보에 오른 재능 있는 작가의 신작

*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혼란에 빠진 다섯 명의 아이들, 숨겨진 비밀과 예측 할 수 없는 감정들

타이와 소피는 누가 보면 남매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애교도 많고 사랑스러운 타이는 옆집에 이사온 뒤부터 꼭 소피와 단짝으로 지냈고 스스럼 없이 집에 놀러 와서 소피의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노는 것이 일상이 되어 이제는 장보러 가면 다들 당연한 듯이 타이의 간식을 챙겨올 정도다.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날도, 소피의 아빠와 오빠가 외출한 사이 두 사람은 거실에서 뒹굴뒹굴 놀며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도 늘 여덟 시쯤이면 간식 없느냐고 성화를 부리는 타이답게 딱 그 시각쯤이 되자 소피에게 초콜릿을 내놓으라고 난리였다. 타이의 귀여운 투정을 놀리던 소피는 그만 몇 주 전부터 생긴 묘한 감정을 또 다시 느끼고 말았다. 편하게 자신을 쿡쿡 찌러대는 타이를 보면서 이제는 서로 제일 가까운 친구가 아닌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픈 자신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한 소피는 순간적으로 타이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다. 하지만 타이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 당혹스러운 표정에 이어 소피가 누구보다 잘 아는,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을 때나 얼굴에 떠오르는 억지 미소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소피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소피는 얼른 부엌으로 초콜릿을 가지러 가는데,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 소리도, 타이가 내는 소리도 아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기계음,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소피가 돌아봤을 때 이미 거대한 물체가 집 정면을 막고 거실 유리를 부수며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뚝연 먼지 속에 모습을 드러낸 그 물체는 자동차였다.

소피와 타이가 거실에서 뒹굴던 시각, 바로 옆집에 사는 열한 살 이지는 부엌 창문과 블라인

드 사이 좁고 답답한 공간에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자기 집도 아니면서 왕처럼 행동하는 데이브 아저씨가 또 다시 엄마를 괴롭히고 있었다. 욕설, 여기저기 집어 던져진 물건들, 잡아먹을 듯 고래고래 소리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무섭고 듣기 싫었다. 이지는 데이브의 눈에 띄어 욕을 먹을 것이 두려워 그 좁은 공간에 서서 창 밖을 내다보며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애썼다. 그런데 저 길 끝에서 이상한 자동차 하나가 나타났다. 동네 주민들 차는 누가 어떤 색 차를 모는지 다 아는데, 그 노란 차는 이지가 처음 보는 자동차였다. 게다가 운전할 줄 모르는 이지가 보기에든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았다. 비틀대고, 속도도 오락가락하고, 무엇보다 앞 좌석에 탄 두 사람이 하얗게 질려 무언가를 소리치고 있었다. 뒷좌석에 또 다른 사람의 형체도 보이고, 아슬아슬하게 이지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던 그 차는 순식간에 소피네 집 안뜰로 들어섰다. 이지가 기겁하는 찰나, 차 앞머리가 그 집 거실 창문을 다 부수고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이지는 똑똑히 보았다. 깜짝 놀라 블라인드 뒤에서 나온 이지는 소피네 집으로 향하려다 끔찍한 장면을 또 목격했다. 데이브가 엄마 손을 붙들고 강제로 활활 타오르는 가스 불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고, 손가락은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엄마를 도와야 하나, 사고가 난 옆집에 가봐야 하나 어린 이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결국 타이는 혼수상태에 빠지고, 소피와 그 장면을 목격한 이지, 노란 차 앞 좌석에 앉아 있던 두 쌍둥이 남매, 해리와 켄마 모두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서 맞닥뜨린 다섯 사람의 운명은 이 사고로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한 켄마의 어두운 과거와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이지로 인해 더욱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소피는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 타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당사자, 해리에게 묘하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여러 주인공들의 시선이 번갈아 가며 긴박함을 더하고 서로의 알 수 없는 감정과 비밀이 읽을수록 빠져들게 만드는 흡입력을 발휘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리사 드레이크포드(Lisa Drakeford)는 사서로 일하다가 YA 소설에 푹 빠져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쓰기 강좌를 수없이 들은 뒤 현재는 어린이 과외교사로 일하면서 YA 소설을 쓰고 있다. 2015년에 발표된 소설 『The Baby』로 브랜포드 보스 어워드(Branford Boase Award)와 카네기 메달 후보에 오르고 평단과 독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제목 : QUEEN OF HEARTS

가제 : 하트 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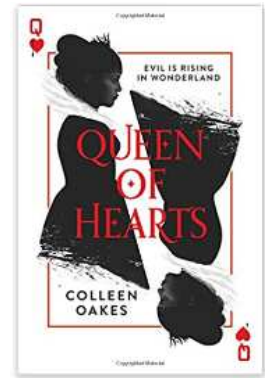
저자 : Colleen Oakes

출판사: HarperTeen

발행일: 2016년 5월 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유니버설(**Universal**) 필름 영화 제작 예정, 현재까지 페이퍼백 **16,000부**, 하드커버 **10,000부** 판매,
- * 멕시코,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판권 계약 체결
- * “고전 속 악당의 뒷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악당을 이해하게 하는 최신 동화” – 북리스트
- * “문학의 마법을 발휘하여 우리를 토끼 굴로 데려가 원더랜드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찬다 한(**Chanda Hahn**)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바로 아래, 땅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원더랜드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오랜 세월 사랑을 받고 있다. 주인공인 앨리스보다 하나같이 특별하고 개성 넘치는 원더랜드의 구성원들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을까? 특히 사악한 악당으로 그려지지만 왠지 무조건 미워할 수만은 없는 하트 여왕은 왜 그렇게 고집불통에 아무도 못 믿고 불안해하면서 살게 됐을까? 이 소설은 앨리스가 토끼 굴에 빠져 원더랜드를 발견하기 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트 여왕을 중심으로 그 흥미진진한 상상 속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알고 나면 여왕에게 더 애잔한 마음이 들게 하는 이야기는 긴장감 가득한 음모, 친숙한 원더랜드 구성원들의 새로운 모습들로 원작 못지 않은 감동과 재미를 안겨준다.

원더랜드를 지배하는 왕, 하트 킹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지만 둘 다 왕국 사람들에게도, 신하들에게도, 심지어 부모인 왕에게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찰스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온갖 모자를 만드는 데 폭 빠져 살았다. 찰스가 온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만든 모자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지만 왕위를 계승해야 할 사람이 할 만한 일은 아니었기에 일찍부터 왕좌에 앉을 후보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결국 이제 열일곱 살이 된 하트킹의 딸, 원더랜드의 공주 디나가 열여덟 살이 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원더랜드를 통치할 예정이지만 사람들은 예쁘지도 않고 통통한 몸매에 썩 잘하는 것도 없는 디나를 영 탐탁해하지 않았다. 신하들도 디나의 용모를 뒤에서 깔깔대며 비웃고 왕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혼내기만 할 뿐 다정하게 해주거나 걱정해주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디나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지만 돌아오는 건 호통과 무관심뿐이라 왜 자신은 이렇게 태어났는지 한숨만 늘어갈 뿐이었다. 멋진 여왕이 되어 남몰래 짝사랑해온 친구, 위들리와 결혼을 해서 원더랜드를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디나의 꿈이지만 현실은 너무 암담했다. 급기야 왕이 예고도 없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디나의 삶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남몰래 연락하고 지내던 딸, 비티오레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하고 왕궁에 들어와 살도록 한 것이다.

디나는 배다른 자매라는 비티오레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왕이 자신이나 오빠를 대하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태도로 비티오레에게 상냥하게 애정을 담아 대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고역인데 미끈한 몸매에 얼굴까지 예쁜 비티오레를 향한 신하들과 왕국 사람들의 찬탄은 디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여왕 자리를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에게 뺏기는 건 아닐까? 초조해하던 디나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 왕의 곁에서 누구보다 충직한 심복이자 자문관으로 일하는 체셔에게서 뭔가 수상한 낌새가 느껴진 것이다. 음침한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디나는 악당의 비밀을 밝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친구 위틀리와 함께 위험한 여정에 나선 디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살범의 표적이 되고, 살인 사건에 휘말려 살인자 누명까지 쓰고 목숨을 건 도망 길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만다. 과연 디나는 자신과 왕국을 노리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무사히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하트 여왕이 어쩌다 그 지경에 이르렀는지, 작가는 우리를 다시 한 번 아기자기하고 마법이 가득한 원더랜드로 초대하여 그 기나긴 사연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저자 소개>

콜린 오크스(Colleen Oakes)는 『Elly in Bloom』 시리즈, 『Wendy Darling saga』 등 여러 YA 소설과 성인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현재 미국 덴버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